

신영정보통신(주)

통신기술 발전을 위해 전력

- 시스템의 제작, 판매, 보수를 중심으로 -



▲컴퓨터전문가는 컴퓨터만, 전기통신전문가는 통신분야만 아는 것이 현 정보통신산업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李東珍사장

종합 정보시대의 애프터서비스를 주요사업으로, 또한 패킷망에 대한 유니트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신영정보통신(주).

신영정보통신은 지난 68년 설립된 「신영전기상사」를 전신으로 하며, 그 당시 전기통신분야는 일본·독일·미군의 중고 통신장비를 불하 받아 재조립하여 판매하는 원시적 형태를 못면했다. 따라서 신영은 초기에는 텔렉스·팩시밀리·데이터통신 분야에서 주로 단말기 설치공사 및 통신시스템 구성사업에 주력했다. 이후 이용고객

들을 위한 통신운영 업무의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점차 선진국들의 고도화된 통신시스템에 자극을 받아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낀 신영은 79년 초부터 자체 연구개발팀을 구성, 80년 국내 최초로 마이크로프로세서(SY 6502)를 이용한 자동전신교환기를 개발 제작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81년부터는 컴퓨터와 텔렉스 교환망과의 접속장치인 「S-TS-1000 Auto Telex Unit」와 인쇄전신 자동화시스템인 「STS-3000 Message Control System(8포트 미만)」을

개발, 이용고객들의 각종 요구에 부응하는 주문제작 방식으로 국내 20여 회사에 납품하여 시스템의 효율성, 경제성 및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87년 4월에는 종합통신 시스템의 하나인 「STS-5000 Message Processing System(8-256 포트)」을 개발하여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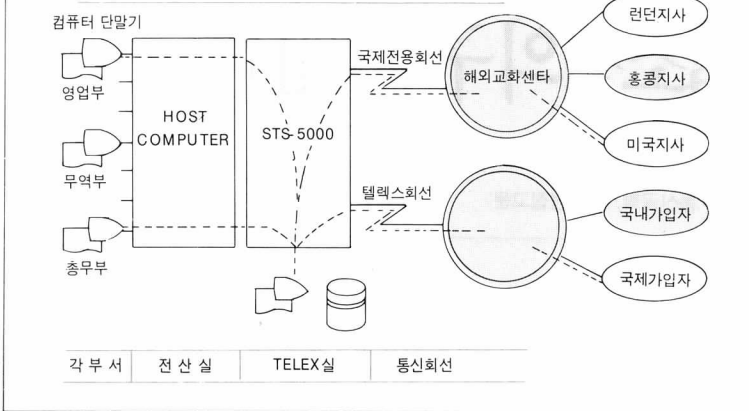
STS-5000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 터미널, 퍼스널컴퓨터 및 대형컴퓨터를 접속하여 기기 상호간의 데이터 교환 및 전자우편 기능을 수행케하며, 통신하고자 하는 상대기기와의 통신 속도, 코드 등이 상이하여도 상호 통신이 가능하고, 퍼스널컴퓨터등에서도 직접 TTY(Teletypewriter : 전신타자기)/텔렉스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데이터 PABX(Private Automatic Branch Exchange: 자동식 구내 교환설비)를 기본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뛰어난 확장성 및 경제성, 효율성을 지닌 컴퓨터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시지스위칭 기능으로 각 포트에서 입력된 어드레스 및 이름을

시스템 구성 사용 예 (전산시스템이 있는 경우)



읽어 해당 포트와 연결시킨다.

둘째, 각 포트에서 입력되는 메시지의 시작·정지점을 체크하여 시작점에서 시스템에 저장하고, 정지점에서 순차적으로 해당 포트에 재전송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세째, 연결된 두개의 포트간에 대화형식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 기능을 수행한다.

네째, 시스템 콘솔(Console)에 의해 특정 메시지를 모든 포트에 동시에 전송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다섯째, 특정 메시지를 다수의 포트에 동시에 전송하는 기능과 임의의 포트에서 시스템으로 입력된 메시지가 시스템내 다수의 다른 포트에 재전송을 원할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외에 이 시스템은 자동호출/재호출, 예약전송, 전송완료통보, 한글·영문 혼합사용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시스템 도입의 효과로는 수동작업에서 자동화로의 전환, 업무 개선의 획기적인 향상, 간편하고 장기적인 문서보관, 장기적인 면에서의 경

비절감 등을 들 수 있다.

지난 77년 신영의 제2대 사장에 취임, 작년 1월부터 11개월의 공백기를 거쳐 12월 다시 사장에 오른 李東珍(40)은 신용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으로 출발, 이 분야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李사장은 「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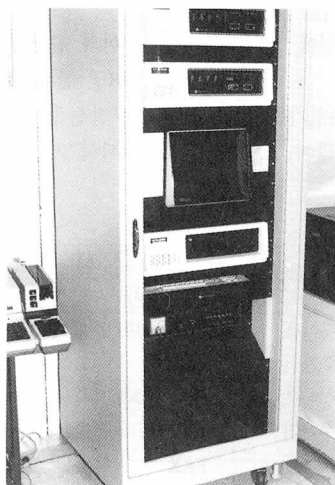
기업이 난립되어 있는 상황이라 대기업으로의 도약은 힘들겠지만 직원 2~3백명의 규모까지는 키울 수 있다」며, 「내실 있는 경영을 바탕으로 사욕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며, 그 후 직원사택을 마련하는 등 직원들의 복지후생에 힘을 쏟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또한 「최근 5~6년 사이에 전자와 통신에서의 기술발전은 1년에 서너단계씩 도약했다. 그러다보니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자가 이를 따라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기술발전을 뒷받침할 관계법률이 재정비 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정보통신산업의 문제점으로 「전기통신과 컴퓨터의 매칭이 잘 안되고 있다. 이유는 인력면에서 컴퓨터 전문가는 컴퓨터분야만, 전기통신 전문가는 전기통신 분야만 알기 때문에 이들을 재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李사장은 尹貞妊(여사)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현재 직원이 45명인 신영은 올해 초 신입사원을 모집, 도약을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부산·포항·마산·광양에 지방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으며, 작년 매출액은 15억원, 올 매출목표는 20억원으로 잡고 있다. ♣



▲ STS-5000 메시지 프로세싱 시스템